

# 청산도 구들장 논 정비해 귀농·귀촌인 기반 시설 조성

### 완도군 '농촌공간정비' 선정 2027년까지 국·도·군비 50억원 투입 귀농인 임대 주택 건설... 복합문화시설·세계농업유산센터 건립도

세계중요농업유산인 '구들장 논'이 펼쳐진 완도군 청산면 농업유산지구에서 오는 2027년까지 50억원 규모 '농촌공간정비사업'을 벌이면서 세계농업유산센터 건립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완도군은 최근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2023년 농촌공간정비사업' 공모에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번 1차 공모에서 완도 청산도 구들장 논과 곡성 구원지구, 나주 오룡지구 등 12개 지구를 선정했다. 지난 2월에는 농촌협약과 연계해 함평 동정리 등 8개 지구를 선정하기도 했다.

농식품부는 올해 신규 사업지구로 모두 40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완도군은 공모에 선정되면서 국비 25억원과 도비 7억5000만원, 군비 17억5000만원 등 모두 5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게 됐다.

군은 오는 2027년까지 5년간 농업유산지구 핵심보전 구역인 청산도 구들장 논에서 빈집과 축사 등을 철거하고 재생사업을 추진한다.

농촌공간정비사업은 농촌공간계획 이행에 필요한 핵심 사업이다. 마을 안 유해 시설을 철거하고,

정비한 부지를 마을 주민들을 위한 쉼터·생활시설 조성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비된 공간에는 귀농·귀촌인을 위한 임대 주택을 마련하고, 구들장 논을 복원해 영농 활동을 위한 기반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곳에서는 주민 숙원인 복합문화시설과 세계농업유산센터도 건립될 예정이다.

청산도 구들장 논은 경사지를 일구 땅에 크고 작은 돌을 구들장처럼 깔아 그 위에 흙을 다져 만들었다. 급경사에 돌이 많고 물빠짐이 심한 지형을 극복하기 위해 전통 온돌 방식을 적용했다. 독특한 계단식 논농사는 400여 년의 역사를 지닌 청산도만의 고유 농업기술이다.

완도 청산도 전역(4147ha)은 지난 2013년 국가중요농업유산 1호에 선정되고 이듬해에는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됐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전통 농업과 문화경관을 복원하고 정비해서 치유 명소로 떠오르고 있는 청산 해양치유공원과 연계해 관광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완도군은 오는 2027년까지 5년간 청산도 농업유산지구에서 유해 시설을 치우고 귀농인을 위한 임대 주택 등을 조성하는 '농촌공간정비사업'을 추진한다. 구들장 논이 펼쳐진 청산도 농업유산지구 전경. <광주일보 자료사진>

##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수질오염 주범

### 관로 막힘·악취 등 유발...무안군, 인증제품 사용 권장

무안군이 주방용 오물분쇄기에 대한 무분별한 사용으로 수질오염 우려가 높아지면서 올바른 사용을 권장하고 나섰다.

최근 주방용 오물분쇄기 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 제품 사용이 늘면서 하천 수질오염과 관로 막힘, 악취 유발 등 문제가 잇따르고 있다.

무안군은 불법 제품 사용을 금지하고 인증 제품에 대한 올바른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사용할 때는 음식물 찌꺼기 80% 이상은 회수통으로 받아 음식물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려야 한다.

하수로 배출하는 음식물 찌꺼기는 20% 미만이어야 한다.

기존 설치된 주방용 오물분쇄기에서 회수통을 제거해 하수로 직접 쓰레기를 배출하는 것은 금지되고 있다.

불법 제품을 사용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되고, 불법 제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주방용 오물분쇄기 인증 유효 제품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물기술인증원의 주방용 오물분쇄기 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산 무안군수는 "인증받은 주방용 오물분쇄기 제품을 사용해 깨끗한 하천 수질 관리에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무안=김민준 기자 jun@

## 목포시, 시민 중심 특색있는 문화도시 만들기

### 법정 문화도시 지정 2년차 문화도시위원 13명 위촉 문화시민 양성·문화 발굴 추진

올해 법정 문화도시 2년 차를 맞은 목포시가 '특색있는 문화도시' 만들기를 추진한다.

목포시는 올해 '도시를 잇다, 문화향구도시 목포'를 내걸고 법정 문화도시 2년 차 사업을 추진한다.

문화도시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지역별 고유한 문화자원을 활용해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정된다.

전남에서는 목포가 유일하게 문화도시로 지정됐다.

올해 목포는 시민 협의회 구축을 확대하고 전남 서남권 지역 교류 사업을 강화할 계획을 세웠다.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앞서 지난 17일 문화도시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주요 사업 현안을 논의했다.

문화도시위원회는 목포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조례에 따라 지난 2021년 출범한 공식적 의사결정 기구다.

이번 위원회는 최성환 목포대학교 교수를 위원장으로 시의회, 시민사회, 문화예술 단체에서 활동하는 각 분야 전문가 13명이 위원으로 위촉됐다. 임기는 2년이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지난해 문화도시 사업 추진결과와 2023년 문화도시 조성사업 계획에 대한 보고와 사업 방향·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올해는 문화시민 양성을 위한 문화치유사업과 목포만의 문화를 발굴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미래문화준비단과 문화도시이카데미 프로그램



법정 문화도시 2년 차를 맞은 목포시가 지난 17일 문화도시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올해 사업 현안을 논의했다. 박홍률(앞줄 오른쪽 세 번째) 시장과 위원들이 회의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목포시 제공>

을 운영하고 목포 문화를 찾아내기 위한 '토속문화 리메이크', '목포문화디지토' 등 사업을 진행한다. 또 목포문화의 날, 문화향구페스타 등을 진행해 문화도시 목포의 위상을 굳힐 계획이다.

목포시는 지난 2020년 예비 문화도시 지정을 거쳐 2021년 법정 문화도시에 최종 선정됐다.

지난해부터 5년간 198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문화도시를 조성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문화도시위원회, 문화도시자문위원회, 문화통장 등 전문성과 실행력을 높일 문화협의체를 구축하며 1차년도 사업을 진행했다.

국비·도비·시비 30억원을 투입해 문화갯마을, 생활장인대학 등 지역 문화 인재 양성을 활성

했다. 2곳의 품지락실습실을 운영하고 문화교류 탐험대를 운영해 시민의 문화 참여도를 높였다.

지난해 총 22개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한 결과 지난 2월 문화체육관광부의 2022년 문화도시 조성사업 성과 평가에서 '우수도시'로 선정되기도 했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문화도시 사업은 문화도시위원회, 시민협의회, 관계기관 등 다양한 주체들이 유기적 관계가 이루어질 때 빛을 발할 수 있다"며 "시민들의 의견을 지속해서 수렴해 목포만의 특색있는 문화도시 브랜드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목포=문병선 기자·서부취재본부장 moon@

## 신안 정원 알릴 해설사 30명 배출

### 농기센터서 수료식...하반기 1·2기 수료생 심화 과정

신안군은 최근 '2023년 2기 정원해설사' 양성 교육을 진행해 30여 명의 정원해설사를 배출했다고 22일 밝혔다.

신안군은 2기 정원해설사 양성 교육 기초과정을 수료한 30여 명과 지난 20일 신안군농업기술센터에서 수료식을 열었다.

정원해설사 양성 교육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진행했다. 신안군은 1심 1테마정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참가자들은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20일까지 한 달 동안 총 54시간 교육을 받았다.

신안지역 섬에 있는 정원 자원을 알아보고 전달력 있는 해설을 위해 발생 교육과 현장 실습 교육

을 받았다.

신안군은 하반기에 1기, 2기 수료생들을 대상으로 심화 과정을 운영한다.

시험을 통과한 수료생에게는 민간 자격증을 발급한 뒤 정원해설사로 활용할 예정이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1심 1테마정원을 만들어 가고 있는 1004섬에서 정원해설사의 역할이 매우 크며 교육을 받기 위해 섬 지역 읍·면에서도 배를 타고 교육과정을 성실히 이수한 수료생 모두가 신안군의 힘"이라며 "신안군 정원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정원해설사로서 역량 강화를 위해 꾸준히 기량을 갈고 닦아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 진도 오지 어르신 찾아 달려갑니다



### 군, 노인복지관에 승합차 전달

진도노인복지관이 최근 승합차를 새로 운행하며 교통 취약지에 있는 고령자에 대한 복지 서비스에 활용하기로 했다.

진도군은 최근 진도노인복지관 분관에 4000만 원 상당 승합차 '스튜디오'를 전달했다. <사진> 이번엔 전달한 차량은 복지관을 이용하는 고령

자를 위한 이동 수단으로 쓰인다.

진도노인복지관은 교통 취약지에 사는 어르신을 위한 '이동 복지관' 사업과 각종 노인 복지 서비스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취약계층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 등 진도군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군민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적재적소에서 사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도=이종수 기자 js7777@

## 가고싶은 '퍼플섬'

### 4년 연속 '찾고 싶은 섬 5' 선정

신안군은 행정안전부와 한국섬진흥원이 공동으로 선정한 '2023 봄철 찾아가고 싶은 섬' 5곳에 퍼플섬이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봄철 찾아가고 싶은 섬'은 아름다운 꽃과 트레킹을 테마로 행정안전부에서 선정했다.

신안군에서는 '퍼플섬'이 라벤더 꽃과 섬과 섬을 잇는 보행과 트레킹 '퍼플브릿지'를 테마로 가고 싶은 섬으로 추천받았다.

4년 연속 '찾아가고 싶은 섬'으로 선정된 퍼플섬은 한 번에 3개의 섬을 걸어 여행할 수 있는 이색 명소로 마을 지붕부터 도로, 휴지통, 식당 그릇까지 보랏빛으로 물든 아름다운 섬이다.

봄에 피는 라벤더 꽃에 이어 벚꽃마면초꽃과 가을에는 아스타 국화꽃이 만개해 4개월 꽃향기로 가득한 섬으로 UNWTO 세계 최우수 관광마을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선정한 한국관광의 별이다.

5월 중에는 섬 라벤더 꽃 축제가 개최되며, 봄철 아름다운 꽃을 찾는 여행객들에게 최적의 관광지 가 될 것이다.



안좌도 퍼플섬.

박우량 신안군수는 "신안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섬으로 이뤄진 지자체"라면서 "퍼플섬 외에도 톨립과 흥매로 빛나는 임자도, 수선화 꽃으로 가

득찬 선도 등 다양한 섬들에서 꽃들이 각자의 매력을 뽐내고 있다"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